

청소년 가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정운숙* · 박신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보다 빠른 속도로 사회변동을 체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 시대간의 변화 등 새로운 삶에 대한 적응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도기적 변화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는 사회 문화적인 내적 기능들이 정치, 경제 기능들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물질문명의 생활 속에 정신, 문화적인 빈곤이 초래됨에 따라 자아 상실과 소외감, 미래를 향한 가치관을 잃은 체 타의적 제도에 의해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오늘날의 사회현상은 가정교육의 기능상실 및 본질적인 학교교육의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인간성 상실과 청소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Lyou, Byoung youn, 2000).

우리 사회의 이와 같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범람하는 향락적, 퇴폐적인 과소비 문화와 청소년 유해 환경의 변인 속에서 생기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스 및 본드 흡입문제, 마약, 교내외의 조직 폭력문제, 소녀 율락 행위문제, 미혼모 문제 등과 관련하여 특히, 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Um, Myung Yong, 1996).

청소년의 가출은 미래의 우리나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의 시발점이 되고 있기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가출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가출행동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곧 비행, 범죄와도 직결되어 가족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가출은 단순히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 겪게되는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위험한 것들에 접하면서 일상생활상의 문제와 곤경 등을 배우기 때문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YMCA, 1996).

미국의 경우 해마다 70만 내지 100만명의 청소년들이 가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Cahill, 1988).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 가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의 실제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추정치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경찰이나 학교 및 공공기관을 통해 집계된 가출 청소년 숫자와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청소년 가출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까지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집을 떠나서 거리를 떠도는 가출 청소년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82 신고센터' 자료에 따르면, 1995년 한해 동안 신고된 20세 미만의 가출 청소년의 수는 19,013명이었으며, 1996년에는 19,320명, 1997년에

* 동우대학 간호학과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19,835명, 1998년 15,316명, 1999년은 17,894명 이었으며 2000년에는 18,964명으로 나타났다(Police White Paper, 2000).

또한 서울 YMCA 청소년 쉼터에서는, 실제 가출 청소년의 가출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조사에 응한 청소년 중 77.4%가 가출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으며,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5.2%였고,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54.8%이었다(YMCA, 1996).

최근 들어서 더욱 우려가 되고 있는 일부 현상은, 청소년기의 가출은 특별한 가정적, 학교환경적 사정이 있거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다는 청소년기에 한 두 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말한다면, 청소년 가출은 현재 나와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해서 결코 방지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곁에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는 점이다(Practical Union of Citizen for Adolescence Loving, 1997). 더구나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전환의 시기이므로 성인 성격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하며, 이를 정체감(identity), 정체위기(identity crisis), 정체혼미(identity confusion)라고 보고 있으며(E. H. Erikson, 1963),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인 면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써 인격형성과 생활향유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Jung, Woo Sick, 1986).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의 주기별에 따른 심신의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함에 이바지해야 할 간호학에서는 가장 최근의 연구로써 Jung, Hae Kyung(2000)이 '청소년 가출에 관한 예측 모형' 연구를 발표하였을 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그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돕고, 그들 스스로가 자율적, 창조적이며 가치있는 존재라는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가출 청소년들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할 기초 자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특성을 고찰한다.
- 2) 청소년 가출의 개념을 고찰한다.

3)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고찰한다.

4) 청소년 가출의 유형을 고찰한다.

II. 본 론

1. 청소년의 특성

오늘날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adolescence)이란 용어는 Stanley Hall이 처음으로 체계화하여 사용하였으며 Hall 이전에 플라톤(Plato),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 코메니우스(Comenius), 루소(Rousseau), 허바스트(Herbst), 프로벨(Frobel), 페스탈로찌(Pestalozzi) 등이 인간 발달 이론의 교수법에 응용시켰으며, 그들은 모두 청소년에 관심을 둔 철학자와 교육자들이었다(Muuss, 1962).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란 다른 발달 과정에 비해 가장 큰 변화의 시기로 우리 인간의 발달 과정을 크게 아동기와 성인기로 나누어 볼 때,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분명히 청소년기에는 다른 인생 단계에서 보기 드문 여러 가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고양된 자의식, 패거리 짓기, 이상주의, 과시 행동, 무모한 행동, 수치심 및 수줍음에 대한 예민함 등이다. 그러나 이런 무모한 행동은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일탈 행동이나 정신 병리의 지표가 아닌, 성인의 기준에 비추어 수용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Yeun, Jin, & Kim, In Kyung, 1994). 그러나 전문 분야의 관점에 따라서 청소년기에 대하여 그 개념 정의를 다소 달리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신체적 성장 및 정신적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법학에서는 분별력 및 판단력 등 사회적이며 인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의학에서는 인간의 발달 형태에 따른 성숙도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Lee, So Hee, Ju, Jung Il, 1981).

E. H. Erikson(1963)은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전환의 시기이므로, 성인 성격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하며, 이를 정체감(identity), 정체위기(identity crisis), 정체혼미(identity confusion)라고 보았다.

한편,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과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정체감 위기로 인하여 소속감을 상실하는 시기이다. 즉, 그들은 성인과는 다른 독특한 자기들만의 세계를 가지며, 그런 가치와 맞지

않는 기성 가치 체계 및 관습을 강요당할 때 적응 대신 이탈을 취하게 된다. 이탈의 과정은 먼저 심리적 이탈, 다음으로는 지리적, 사회적 이탈이라는 소속에서의 이탈 현상으로 나타난다. 가출 현상이나 방랑벽, 그리고 갱집단의 형성이 심리적 이탈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둘째, 감정 표현의 양극화 시기이다. 즉, 인생의 발달 단계 중 청소년기의 도래는 감정의 양면성을 갖게 되며 쉽게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감정의 변화에 따른 과격한 언어 및 행동 표현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의 일면만을 강조하게 되는 성인들은, 어쩌면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결여로 올바른 지도와 교육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감정 변화에 따른 의식과 행동 양상에 대한 이해에서 수반된 긍정적인 측면의 접근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강한 성적 호기심의 시기이다. 즉, 청소년은 성적 충동과 이성에 대하여 관심이 싹트기 시작하여 이성의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이성에 대한 책을 읽거나 이야기 듣기를 즐긴다. 때로는 이러한 관심이 변형되어 성적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그러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Jong-ok, Jang, 1997). 넷째, 심리적 불안감과 불안정의 시기이다. 이는, 분할되지 않는 심리적인 변화에 있어서 신체적인 발달과 더불어 기대되어지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불완전 할수록 이 불안감은 증대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준비나 자신의 존재와 목표에 대한 완전한 준비는 불가능하며, 여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불만이나 도피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Hurluck, 1973). 다섯째, 청소년은 그 시기 특유의 문제 행동적 성향을 갖는다. 이는, 청소년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감정, 예를 들면 부모에게 의존 대 독립, 순종 대 반항, 희망 대 낙망, 이상 대 현실간의 격차를 보인다. 어린아이로 취급하면 불안해 하기도 한다. 여섯째, 현실 상황에 대한 대안 제시의 시기이다. 즉, 인지적인 발달은 고등 정신작용 구조를 운영하고 내성과 자아 분석의 경향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적인 발달로 인해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비리에 대한 비판과 분석하는 응용력이 증가하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대안을 자신이 제시하기도 한다. 일곱째, 사회적 승인에 대한 욕구가 커가는 시기이다. 즉, 청소년은 사회적 승인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성인이나 성인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멋을 부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어려운 말을 사용하길 즐긴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는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

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Jong-ok, Jang, 1997).

2. 청소년 가출의 개념

가출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Lee, Jung Ja(1973)는 가출은 '일반적으로 결혼이나 혈연적 관계로 맺어진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라는 집단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길을 걷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Choi, Je Suk(1982)에 의하면 가출이란 '가족의 찬바람 생활의 불안정을 참아내지 못하고 현재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정신적 갈등의 해결이나 자기가 꿈꾸고 있는 생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을 떠나 안주의 장소를 구하려고 하는 일종의 도피행동이다'라고 말하였다. An Jae Jung(1984)은 가출은 '가정에 있어서의 가족의 인간관계의 불안정을 참아내지 못하여 가족의 구성원이 가정을 이탈하는 것이며, 가정의 냉대와 생활의 불안정함에 견디기 어려워져 현재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정신적인 갈등해소나 자기의 원하는 생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정을 떠나서 안주할 장소를 구하려고 하는 일종의 도피행동이다'라고 하였다. Korean Research Association of a Criminal Policy(1993)은 가출이란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보호자의 승인 없이 최소한의 하룻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충동적 혹은 계획적 행위'라고 하였다.

외국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M. Howell, E. Emmons과 D. Frank(1973)는 '적절한 시기나 승인된 시기 이전에 부모나 성인의 보호 하의 집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Miller의는 당시의 가출의 정의가 엄격한 법적 정의 내지는 지나치게 모호한 정의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17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① 부모의 허락없이 집을 떠났거나, ② 법 집행체계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가출자로 정의 내리고 있거나, ③ 스스로가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가출자로 정의 내린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즉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가출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Hyang-Cho Kim, 1998).

이와같이 가출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는데, 이것은 각자 소관 업무나

관심사에 따라 가출을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모든 정의를 종합해 볼 때, 가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출 청소년이란 '다소 의식적 혹은 충동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최소한 24시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다(Kim Young-ji, 1995; Jong-ok, Jang, 1996; Ha, Soon In, 1997; Lee, Min Hee, 1998; Kim, Suk hee, 2001).

이러한 청소년 가출의 개념은 가출이 개인, 가정,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가출을 하나의 일탈행위로 규정되어야 할 부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가출은 자유를 구하려는 필연의 생산과정 혹은 자립과 자아의 최초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써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규정되기도 한다(Chang Hyo Kyong, 2000).

3: 청소년 가출의 원인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1950년대에는 전쟁고아들의 가출 현상이 나타났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산업화 시기에 따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집안을 돕기 위해 도시로 모여드는 '탈출형 가출'과 '동경형 가출'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부터는 단순가출 혹은 본인의 성격 결함 내지 욕구 불만, 또래 집단의 충동, 가정 파탄 등 본인의 내적 요인 내지 주변환경에 따른 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출 요인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단순히 청소년이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내쫓는 방출요인(가정이나 학교적 요인)과 집밖으로 끌어내는 유인요인(사회 환경적 요인)과 가출행위를 실제로 유발시키는 촉발요인(따분함, 충동, 친구들의 유인)의 상호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작용에 기인된다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또한,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교우관계 요인(또래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설명하려는 견해도 있다(Kim, Suk hee, 2001).

이러한 견해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요인 : 개인적 차원에서 보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2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가출 청소년들은 비가출 청소년들에 비해서 심리적, 정신적 이상 혹은 부정적인 태도 등을 보인다는 관점이다. 개인적 요인에 대한

고찰은 원래 가출의 원인이 개인의 정신 병리적 현상에 있다는 사실에 비중을 두면서 시작되었다. 즉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가출을 하고 다른 사람은 가출을 하지 않는 데에서 개인적 특성의 차이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거나 충동적이며 화를 잘 내는 등의 신경증 또는 정신적 장애, 해소되지 않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가출 청소년은 비가출 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자기의심이 많고, 방어적이라는 것이다(Gi Back Suk, 1981; Na, Dong Suk and Lee, Yong Kyeo, 1991). 두 번째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찾고 있다. 청소년 가출은 발달 단계상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자아정체감의 성취등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위해 청소년은 자아실현의 욕구와 애정에 대한 욕구를 가지며, 이들 중 어느 한가지라도 만족되지 않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 직면하기 어려운 불안을 감추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욕구를 좌절시킨 부모에 대한 분노 때문에 부모에 대해 복수를 하기 위해 가출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Kim, Ji Hyun, 1996).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다면, 가출 청소년이 나타내는 부정적 성격 특성은 가출 청소년 개인의 신경적, 유전적 결함에서만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출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환경 속에서 겪는 좌절 등의 일상적 경험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Kim, Suk hee, 2001).

2. 동료 요인(또래 요인) :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다면, 청소년기에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확대된다. 청소년들은 가족보다도 친구들이나 혼자서보다 많은 시간을 보낸다(larson, kubey와 colletti, 1989). 따라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사회적 만남의 증가와 다양성 때문에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을 '사회적 세계의 확장'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특정 또래들과 특별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때 특별한 사회적 압력없이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청소년 자신이 원하는 또래들과 선택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어떤 배후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그들의 상호작용 자체에 만족을 얻는다. 따라서 친구관계는 동반 그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이 교우관계의 핵심성질이다. 동시에 청소년들은 또래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

한다. 즉 청소년들은 우의, 가치확인, 친밀감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모보다는 친구들에게 더 의존한다. 그리고 또래집단에 대한 강한 동조 경향을 지닌다. 같은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은 서로의 가치관이나 태도, 흥미 등이 같을 것으로 기대한다(Korean Counselling Association of Adolescence, 1999).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의 확립기로서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타인과의 유대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때이므로 또래집단은 가장 손쉽게 부담 없는 증거집단이자 행동의 모델이 된다. 따라서 또래집단이 가출의 원인으로 중요한 이유는 가족이나 학교에 의해 부과된 사회적 표준에 대한 반발이 가출의 방출요인인 반면에 또래집단은 이를 수용하는 유인 요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Kim, Suk hee, 2001).

3. 가정 요인 :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적, 기능적 결손 가정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물리적 결원이나 결함의 유무에 관한 것으로 양친 또는 양친 중의 한사람이 사망, 이혼, 혹은 유기로 인하여 장기간의 출타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이러한 결손 가정은 형식적으로는 결손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정 불화, 애정결핍, 방임, 무관심 등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간의 유대가 단절되고 가족원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가정내의 분위기,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정도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의 구조적 결손으로 인한 모성상실과 부성상실이 가출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Kim, Jun Ho, 1993).

또한 기능적 결손가정의 경우에 특히, 실제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주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물리적인 결손이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가출 행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청소년이 그들의 부모를 지각하는 형태나 가정의 안정도가 가출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의 부모는 갈등적이고, 방임적, 거부적, 비판적인 특성을 보이며 자녀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거절할 정도로 그들 자신에 몰입하거나 결혼생활에 갈등을 갖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자녀들은 지지와 친밀성을 얻기 위해서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Lee, Ok Ran, 1998).

최근에 특히, 청소년 가출 원인으로써 부각되고 있는 것은 '빈곤과 학대' 문제이다. 여기에서 뜻하는 빈곤이란 물질적 빈곤만이 아니고 각종 상대적인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의 빈곤을 동시에 의미한다. 개인의 성취동기, 열망수준과 자아실현 등의 심리적 차원에 있어서의 박탈과

문화적인 가치로부터의 소외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빈곤이 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은 빈곤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장기적인 빈곤한 생활로 인해서 그들 부모의 무기력, 음주벽, 무질서한 생활상 등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파생되는 가족 구성원 간의 방임과 갈등에 의하여 가출로 유도되기 쉽다(Tomorrow Newspaper, 1999).

학대란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부모에 의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등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학대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이러한 반응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후에 공격성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Kim, Jae Youp and Cho Hak Rae, 1997).

4. 학교 요인 :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학교는 개인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규율과 규범을 배우고 익히는 제 2의 사회화의 장으로써, 지적 학습 뿐 아니라 사회적 학습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생활에서 직면하는 태도, 신념, 윤리, 도덕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학교 생활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들 일상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학교는 가정,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가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건전한 인간 육성을 위한 전인교육, 인성개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및 비행의 가능성을 높히게 됨으로써 가출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교과 성적 이외에도 교사와 친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왕따, 학교폭력)등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여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Kim, Suk hee, 2001).

5. 사회환경 요인 : 청소년기는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월등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전체적인 사회환경 구조의 분위기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생활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오늘날의 지역사회란, 퇴폐 향락적이며 소비 지향적인 유해환경이 적지 않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보고 듣고 이용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얻음으로써 보다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되고, 마침내는 2차적인 비행의 동기와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역을 흔히 배회하게 됨으로써 불량집단과 접촉함은 물론 기성세대의 생활양식을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양식으로 학습하여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직접 보고 듣거나 이용하여 경험을 얻음으로써 보다 많은 일탈문제를 나타내게 된다. 불건전한 사회환경에 대한 모방성 및 유해환경의 광범위한 유포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충동적인 비행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며, 또한 비행의 희생자가 되게도 하는 것이다(Kim, Suk hee, 2001).

4. 청소년 가출의 유형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청소년 가출 유형에 관하여, Lee, Jung Ja(1973)는 가출의 유형을 세 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이미 가출하여 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시설가출 청소년'이고 둘째는 '무단 가출자'를 들고 있으며 셋째는 '허락을 받은 가출'로 이는 당시의 우리나라 실정에서 빈곤한 농촌에서 대다수의 자녀들이 더 잘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20세 이전의 자녀를 도시로 떠나 보내는 개별 이탈인 경우로써, 이들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대부분 아무 통제력이 없는 불량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Kim, Hun Soo(1980)는 가출의 형태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미수성 가출'은 가족과 심리적 결속이 강하여 가출을 해도 방향하다가 몇 시간 내에 집에 돌아오는 경우이고, 둘째, '탐구성 가출'은 심한 반사회적 혹은 정신의학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쾌락이나 독립심을 찾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이며, 셋째, '일차성 가출'은 심한 반사회적 행동은 보여주지 않지만 가출 그 자체는 그들 가족내 정서적 곤란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이고, 넷째, '정신장애로 인한 가출'은 가출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집을 이탈하거나 방황하는 경우이며, 다섯째로는, '반사회적 가출'로써 가출 행동 자체에 있어 비행이나 교정되기 어려운 반 사회적 행동으로 간주되며 가출 후 반사회적 행동을 자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Park, Boo il(1992)은 가출의 규모와 동기 등에 의

거하여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개인적인 가출'로써 근래의 가출 청소년 비율에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집단가출'로써 불량한 친구와 어울리면서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가출 형태로 가출의 기간은 비교적 장기적이며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셋째, '줄줄이 가출'로 특히 여자에게서 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Korean Research Association of a Criminal Policy.(1992)은 또한 청소년 가출의 유형을 가출의 동기, 가출의 결과, 가출의 준비단계 및 가출의 횟수로 분류하여, 가출의 동기에 따라 '추구형 가출'은 새로운 경험이나 즐거움을 찾아 가출하는 경우이고 '탈출형 가출'은 가정의 문제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이며, 또 결과에 따른 가출 유형으로는 '시위성 가출'로써 가족원의 관심 획득을 목적으로 가출하는 경우와 '도피성 가출'인 가정의 문제나 갈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가출하는 경우이고, '추출형 가출'은 가정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쫓겨나 가출하는 경우로 구별하였고, 가출 준비의 성격에 따라 '충동적 가출'은 가출의 계획이나 의사 없이 충동적으로 가출하는 경우이고 '계획적 가출'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와 준비기간을 가지고 가출하는 경우로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가출 횟수에 따라 '일과성 가출'은 한번쯤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가출이며 '반복적 가출'은 반복적인(만성적)으로 가출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고 있다.

Soo-Han Jang(1993)은 가출 동기에 따른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첫째, '목적 지향적 가출'로써 현재의 생활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해서 가출하는 형태로 시골에서 도시로의 상경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가출이 대부분이다. 둘째, '도피형 가출'로 이는 욕구불만이나 자신의 의사에 맞지 않는 가족, 사회 등에 의해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해 가출하고자 한다. 셋째, '단순형 가출'로 단순한 호기심과 놀이를 위해 동료 집단과 동조해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가출한다고 분류하였다.

Lee, Yong Kyo(1993)는 가출 충동의 빈도, 가출 경험 횟수, 가출 후 밖에서 보낸 기간, 가출 후 유혹업소 취업여부와 가출 동기를 기준으로 '단순 탈출 청소년', '만성 탈출 청소년', '단순 가출 청소년', '만성 가출 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Lee, Sang Soon(1993)은 가출 원인에 따라 가출 형태를 분류하였다. 첫째, '학업중단형 가출'로써 이들은

교우관계 불량으로 무단 결석을 자주하다보니 학습장을 일으켜서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공부에 흥미를 상실해 더 이상 학교나 부모님께 면목이 없어 가출하는 유형으로서 정상적인 가정의 청소년이 가출하는 경우는 보통 이러한 경우이다. 둘째, '동정형 가출'로써 이성 친구나 동네 친구 등 친한 친구들이 가출하여 거리를 방황하는 것을 돕다가 함께 가출하는 경우이다. 셋째, '시위형 가출'로써 사춘기가 되어 자신의 열등감이나 부모의 편에 의한 적대감의 폭발로 이유없이 짜증을 내다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가출로써 대개는 집주위에서 2-3일 빙빙 돌다가 귀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넷째, '현실 탈피형'으로 빈곤 가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또는 부모의 학대,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보호시설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하는 가출이다. 다섯째, '추방되어진 가출'로써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녀를 사회에서 고생을 해 보라는 의도로 집에서 내쫓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가출이다.

또한 외국에서 연구된 가출 유형분류를 보면, Greene와 Esselstyn(1972)은 가출 소녀를 가출동기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떠도는 가출소녀(The rootless)', '불안한 가출소녀(The Anxious)', '놀란 가출소녀(The Terrified)'로 분류하였다. '떠도는 가출소녀'는 흔히 순간의 즐거움을 찾는 가출소녀로서 학교를 중퇴하거나 약물사용, 성일탈적인 경험을 보이기도 하며, '불안한 가출소녀'는 과도한 집안 일, 신체적 학대 등으로 시달려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도움을 청할 목적으로 흔히 몇 시간 혹은 하룻밤 정도 가출하는 경우이다. '놀란 가출소녀'는 그녀의 아버지나 계부로부터 성적 학대를 피하기 위하여 가출한 경우로 공포상태에 있으며, 스스로를 피할 수 없는 가족 분열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죄의식이 매우 크다.

Homer(1973) 역시 가출동기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탈출형(Running Form)'과 '추구형(Running To)'이다. '탈출형'은 가족문제로부터 달아난 경우이고, '추구형'은 즐거움을 찾아 나간 경우의 가출소녀를 의미한다.

English(1973)는 가출기간에 따라 '뜨내기(The Floaters)', '반복 가출자(The Recurrent)', '분열자(The Spitters)', '심각한 거리족(The Hard Road Freman)'으로 구분하고 있다. '뜨내기'는 집을 떠나는 것을 즐기는 청소년들로 가출을 해도 48시간 내에 돌아오는 특성을 가지며, '반복 가출자'는 붕괴된 가족상황에서 떠

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거나 또는 가족에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을 떠나는 경우를 말한다. '분열자'는 사소한 좌절로 집을 떠난 청소년들인 반면, '심각한 거리족'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집과 관계가 끊어져 방랑생활을 하는 17-20세의 나이먹은 가출자들로 보통 거의 귀가하지 않는 집단들이라고 한다.

Stierlin(1976)과 Bulter & Reardon(1997)은 가출 청소년의 문제 심각성에 따른 분류를 하였는데, Stierlin은 비수성(Abortive), 분열성(Lonely Schizoid), 우발성(Casual), 위기성(Crisis)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미수성'이란 가족과의 심리적 결속이 강해서 몇 시간 내에 귀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분열성'은 정신장애로 인한 가출을 의미하고, '우발성'과 '위기성'은 각각 충동적인 가출과 위기로 인한 탈출형 가출을 말한다.

Bulter & Reardon(1977)은 탐구가(Seeker), 일차성(Primary), 반사회성(Antisocial), 정신장애성(Mentally Disabled)으로 가출을 구분하였는데, '탐구가'는 쾌락이나 호기심에 의한 가출을 말하며, '일차성'은 자신 및 가정의 문제로 가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반사회성', '정신장애성'은 각각 가출 후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우와 정신장애로 인한 가출을 의미한다.

Donford & Brennan(1976)은 가출 청소년의 자존심 수준, 부모와의 관계, 비행과 약물사용의 정도, 학교 성적 등에 따라 가출 청소년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유형 I은 자만심이 강하고 제멋대로인 가출 청소년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 자신의 삶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느끼며, 부모 역시 방임적 태도를 보이지만, 이들 청소년은 성격과 자존심이 높고, 또래와 교사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형 II는 잘 적응하는 가출 청소년으로서 긍정적인 부모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성향과 자존심이 높다. 유형 III은 비행에 심하게 개입된 청소년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열악하며 학교에 실재한 것이 특징이다. 부모의 거부, 부모의 결혼갈등, 비행과 약물사용의 정도가 높았으며 학교성적은 현저하게 낮은 특징을 보였다. 유형 IV는 달아난 청소년으로 부모가 지나친 통제 및 높은 기대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Miller(1980)는 문제의 원인이 아동과 부모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분류를 하였는데, 부모 요인에 의한 가출의 경우에는 '희생자(Victims)', 추방자(Exiles)', 반항자(Rebels)'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동요인에 의한

가출의 경우에는 '도망자(Fugitives)', '피난자(Refugees)', '이민자(Immigrants)'로 분류하고 있다.

Orten & Soll(1980)은 가출행위의 내면화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유형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첫째, 1급 가출청소년은 걸어 다니는 형 또는 도망자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한두번 가출을 시도한 사람으로 심리적으로 가정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유형은 가출 목적이 도피나 탈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출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된다. 반면 도망자형은 근친상간이나 아동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대인관계가 어려워 가출 후 위협에 빠질 우려가 있다. 둘째, 2급 가출청소년은 이전에 가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좀 더 내면화되어 있는 가출행동을 하는 청소년으로 대개 약물남용이나 임신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가족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하여 가족으로부터 스스로를 더욱 격리한다. 셋째, 3급 가출청소년은 1년 이상 집을 떠나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이들은 길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절도나 공격적 행동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고 가족도 또한 이들이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출 청소년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가출이 모두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가출의 원인, 과정, 가출 청소년의 양태,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 의미가 상이함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Ⅲ.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자는 가출 청소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특성은 다른 발달 과정에 비해 가장 큰 변화의 시기으로써,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다른 인생 단계에서 보기 드문 여러 가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리고 성인 성격에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시기이다.

2. 청소년 가출의 개념은 '다소 의식적 혹은 충동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최소한 24시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3.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집 밖으로 내쫓는 방출 요인, 집 밖으로 끌어내는 유인 요인, 그리고 가출행위를 유발시키는 촉발 요인의 상호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작용에 기인된다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또한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또래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견해도 있다.

4. 청소년 가출의 유형은 가출의 원인, 과정, 청소년의 양태,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인 의미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가출 청소년들은 심신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으며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간호분야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

- An Jae Jung (1984). *Adolescent and Counselling*. Seoul Bok Ji Sa. 67-69.
- Bulter, & Reardon (1977).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sychiatry, Psychoanalysis, and Neurology*, 1, " : Runaway Behavior", 275-279.
- Cahill, K. R. (1988).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Runaway. *Psychometric and Demographic Approaches*. Th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117-118.
- Chang Hyo Kyong (2000). *A study on Adolescent Impulse of Running Away From Home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city of Daejeon*.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 Choi, Je Suk (1982). *Research of Modern Family*. Il Gi SA.
- Dunford, F. W., Brennan, T. (1976). A Taxionomy of Runaway Youth. *Social Service Review*, 3, 457-470.
- E. H. Erikson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Norton co. 261.
- English, C. J. (1973). Leaving Home. A Typology of Runaways. *Society*, 10(5), 22-24.

- Gi, Back Suk (1980). *A Sociopsychiatric Study on Runaway of Delinquent Adolescents*.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 Green, N. B., & Esselstyn (1972). The Beyond Control Girl. *Juvenile Justice*, 23, 13-19.
- Ha, Soon In (199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Environment and Individual Traitsof Juvenile Disappearanc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Homer L. E. (1973). Community-based Resource for Runaway Girls. *Social Casework*, 54(8), 434-479.
- Hurlook, E. E. (1973).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Mcgrew Hill Book Company. 4 th ed.
- Hyang-Cho Kim (1998). *Understanding of the Runaway Adolescent*. Seoul. Hak Ji Sa. 28-29.
- Jong-ok, Jang (1997). *A study of Ego-identity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runaway adolescen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Jung, Hae Kyung (2000). *A Forecast Model on Runaway Youth*. Docto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Jung, Woo Sick (1986). *The Acture State and Counterplan of Adolescence*. Seoul. Sam Sung Pub.
- Kim, Hun Soo (1980). *A Study on the Family Dynamics of Adolescent Runaway in Korea*. Docto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 Kim, Jae Youp and Cho Hak Rae (1997). *Actual state and Problem of Korean Family*. Korean Preventional Association for Maltreatment of Childhood.
- Kim, Ji Hyun (1996). *A Study on the anaiysis of cause for Runaway Girl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Jun Ho (1993). A Study of Relationship for Runaway Adolescence and Wrongdoing. *Korean Research Association of a Criminal Policy*.
- Kim, Suk hee (2001). *The Study on the anaiysis of runaway adolescents' actual state and its problem*.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Kim Young-ji (1995). *The Life History of a Runawa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orean Counselling Association of Adolescence. (1999). *Friendship of Adolescence*. 21.
- Lee, Jung Ja (1973). *An Analytic Study of factors and Corrective Measures for Juvenile Runaways in Korea*.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Min Hee (1998). A Management Model for Runaway Adolescents. *Korean Developmental Association of Repory for Adolescent*, 98(6), 9.
- Lee, Ok Ran (1998). A Study of Actual State and Counterplan for Female Adolescents in Bu-San Area. *Association for Promblem of Female*. Sil La University.
- Lee, Yong Kyo (1993). Where are Runaway Adolescent? *YMCA Symposium II*. YMCA Counselling of Youth.
- Lyou, Byoung youn (2000). *A Study on the Family Welfare for The Prevention of Runaway Adolescent*.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 Lee, So Hee, Ju, Jung Il. (1981). *Science of Childhood*. Seoul. Kyo Moon Sa.
- Miller, D., Miller, D., Hoffman, F. & Duggan, R. (1980). *Runaway Illegal Aliens in Their Own Land : Implication For Services*, N.Y.: Praeger Publishers. 34-36.
- M. Howell, E. Emmons & D. Frank (1973). Reminiscence of Runaway Adolesc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3(4), 840.
- Muuss, R. E. (1962). *Theories of Adolescence*, New York: Random House.
- Na, Dong Suk and Lee, Yong Kyeo (1992). A Study on the Runaway Adolescent. *Korean Research Association of Adolescent*.
- National Police Agency (2000). A Police White Paper.
- Orten, J. D., & Soll, S. K. (1980). *Runaway*

Children and Their Families : A Treatment Typ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1(2), 249-261.

Park, Boo il (1992). The Prevention and Counterplan of Runaway Adolescent. *Korean Association of Adolescent*.

Practical Union of Citizen for Adolescence Loving. (1997). *Guide book of Counselling*. 65-66.

Soo-Han Jang (1993). *The Caution and Countermeasures of the Adolescent Runaways from analysis of cases*. Master's Thesis. Pu San University.

Stierlin, H. (1976). A Family Perspective on Adolescent Runaway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9(1), 56-62.

Tomorrow Newspaper (1999). 4 April. p.14.

Um, Myung Yong. (1996). Interrelationship of Runaway Adolescent and Type of Family Function. *Journal of Korean Family Welfare*, 29(88).

YMCA (1996). Report of Adolescent Shelter. *Seoul YMCA*, 96(10).

Yeun, Jin, & Kim, In Kyung. (1994). Self Centrality of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0(3). 101.

- Abstract -

Literature Review on Adolescent Runaways

Jung, Woon Sook* · Park, Shin Ae**

It was originally thought that runaway adolescents needed to improve their ability to cope with personal problems based on their own understanding of them. As a result we exchanged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matter

as follows:

1. Generally, adolescence is a transitional period from childhood to adulthood and characterized by a dramatic conversion period with unique phenomena relative to other periods. Futhermore, it is the key transitional moment in the development of an adult personality.

2. Runaway adolescents are defined as "adolescents who leave impulsively or intentionally their homes without permission of their parents for at least 24 hours."

3. The reasons for this behavior are generally regarded as complex, interdependent and dynamic including a cast-away factor, seducing factors, and other action-provoking factors. There is also another view to explain the adolescent run-away as a combination of personal, domestic, academic, peer, or social factors.

4. We found that adolescent runaways have different attitudes dependent on the reasons and procedures of runaways, lifestyles of adolescents, and results of their runaway experience.

In conclusion, runaway adolescents are in a very important period in their development and growth of bodies and minds, but are in a great crisis for various complex reasons.

Therefore, we propose that nursing should provide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ability of the runaway adolescents address theses problems by themselves.

Key words : Adolescent Runaways

* Dong - U College of Nursing

** College of Nursing, Kyung Hee University